

Global Goings-on

미국

연금의 무게에 짓눌린 미국의 주정부들

A gold-plated burden

- ▶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민주당 시장인 척 리드씨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 하는 리틀 후버 위원회(Little Hoover Commission)가 개최한 연금개혁 공청회에서 주정부의 직원 수는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부담해야 할 연금급여액은 지난 10년간 3배나 늘어나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금액이 몇 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혀
 - 리드씨의 추산에 따르면 시가 경찰관이나 소방관 한 명을 고용하는데 부담해야 할 평균비용은 1년에 18만 달러
 - 이들은 50세에 은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도 해
 -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3%인상률을 보장 받고 평생 건강보험과 치과보험에 가입되

며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미사용 병가급여를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어

- ▶ 엄청난 연금액의 부담은 미국 공공분야 전체, 특히 주정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 연금 급여액을 소득에 비례해 지급하는 확정급여연금은 지키기에는 매우 비싼 약속
 - 민간 기업들은 직원들이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확정기여연금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
 - 공공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확정급여연금으로 직원들에게 갚아야 할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쌓아 와
 - 문제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기금을 적절히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 ▶ 노스웨스턴대학 켈로그경영대학원의 조슈아 라우와 로체스터대학의 로버트 노비막스는 주정부가 지고 있는 연금부족액이 3조4천억 달러에 달하며 지방정부(municipalities)의 경우 5천7백5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
 - 라우씨의 계산에 따르면 몇몇 주정부의 연금기금은 매우 낙관적인 수익률 8%를 사

- 용하더라도 2020년이면 바닥나게 될 전망
- 몇몇 주정부들은 연기금이 바닥날 경우 세 수입 30% 규모의 연금부채를 안게 돼
- 결국 연금을 계속 지불하기 위해선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유입되어야

- ▶ 지난 수년 동안 자산시장의 높은 수익률과 연금지불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주정부 연금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아
 -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와 대부분의 연기금이 투입된 주식시장의 실적은 암울한 형편
 - 주정부의 예산은 세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한 2008~2009 경기침체의 결과로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은행 위기를 전망해 이름을 날린 분석가인 매러디스 위트니씨에 따르면 주정부는 다음 금융위기의 주범이 될 것
- ▶ 미래에 지불될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수익률)에도 문제가 있어
 - 주정부는 연기금의 예상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20~30년의 운영 실적에 근거해 현재 8% 정도임.
 - 그러나 미래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
 - 펀드매니지먼트사인 핼코의 빌 그로스씨에 따르면 최근 채권의 수익률이 2%이며 전형적인 연기금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주식에 60%, 채권에 40%이기 때문에 8%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선 주식에서 최소 12%의 수익률을 보장받아야 해

- 현재 미국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2~2.5%인 점을 감안할 때 8%의 수익률을 올리려면 배당이 연간 9~10%씩 증가해야
- 배당률은 전체 경제 성장과 거의 일치하는데 9~10%의 경제성장률은 불가능해

- ▶ 사실상 할인율로 수익률을 활용하는 것은 비정상적
 - 이렇게 되면 연기금이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미래연금지불의무의 현재가치는 더 낮아져
- ▶ 민간기업들은 더 이상 예상 수익률 대신 회사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어
 - 같은 금액의 연금액을 미래에 지불한다고 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정부의 현재가치가 민간기업의 현재가치보다 낮게 계산되어 마치 주정부의 연금액 부담이 낮은 것처럼 보여
 - 주정부에게 보다 바람직한 할인율은 지방채의 수익률
- ▶ 지난 3월, 2009년 11월에 당선된 공화당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는 주정부의 신규직원에 대한 연금급여액을 줄여
 - 9월에는 기존 직원들의 연금 기여율을 8.5%까지 인상하고 조기는퇴 조건을 25년 근무에서 30년 근무로 늘리며 은퇴연령을 65세로 올리고 연금액의 물가연동 시스템을 폐지하려는 야망 찬 계획을 발표해

- 노동조합의 반대 등 난관에 봉착할 크리스티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 다른 주정부들도 연금지급방식을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로 바꾸는 등 개혁을 시작하려 하고 있어

- ▶ 주정부의 연금개혁 노력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기존 근로자들과 은퇴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연금액의 막대한 부채 앞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 따라서 기존 연금 수급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음.

2010년 10월 14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17248984?story_id=17248984〉

빛에 노출되면 살이 찐다?

Does light make you fat?

실험 결과, 쥐가 무엇을 섭취하는가 뿐 아니라 언제 섭취하는가가 쥐의 체중에 영향을 미쳐

- ▶ 비만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고열량 식품 및 가공식품의 증가, 운동부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의 생활 등이 지적되어 왔으나 여기에 또 다른 원인으로 “밝은 밤”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 ▶ 빛은 사람의 생체시계를 통제해 - 빛은 식사

나 잠과 같은 예측되는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진대사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

- 이전의 연구를 통해 적어도 쥐의 경우, 생체시계를 관장하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쥐가 더 뚱뚱해지게 한다든지 당뇨와 심장질환 같은 비만에 연계된 문제들에 쥐가 노출되도록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단순히 주변 빛의 강도를 조절해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아

- ▶ 오하이오주립대의 로라 폰켄(Laura Fonken)씨의 연구진은 국립과학연구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보고서에서 야간의 빛이 수컷 쥐의 몸에서 체중, 체지방, 포도당 내성(당뇨병 발병의 주된 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

- 야간에 빛에 조금이라도 노출될 경우엔 체중, 체지방이 증가하고 포도당 내성이 떨어져

- ▶ 실험에서 폰켄 박사는 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후 첫 번째 그룹은 24시간 불을 켜 놓은 곳에 두고, 두 번째 그룹은 쥐들의 자연서식처와 유사한 환경 속에 두고, 나머지 그룹은 밤 시간에 밝은 빛 대신 약간 어둡침침할 정도로 빛을 비춘 곳에 두었음

- 8주 후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의 쥐들은 두 번째 자연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에 있던 쥐들에 비해 체중이 50% 증가해

- 동일한 양의 음식을 먹고 비슷한 활동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의 쥐들은

지방이 증가하고 포도당 내성이 떨어져

- ▶ 이 실험에서 유일한 차이는 쥐들이 음식을 먹는 시간
 - 야생에서 쥐들은 야행성이어서 두 번째 그룹에 있던 쥐들은 “낮” 시간엔 보통 섭취하는 양의 3분의 1만 섭취한 반면 세 번째 그룹에 있던 쥐들은 섭취량이 55%에 달해
- ▶ 폰컨 박사는 생체시계와 관계 없이 “낮”에 먹도록 강요당했던 쥐들의 체중이 “밤”에 먹었던 쥐들의 체중보다 10% 더 증가한 것을 발견
- ▶ 이 실험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해
 - 그러나 사람과 쥐는 생리적으로 유사하여 유사한 효과가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어
 - 물론 쥐는 야행성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져
- ▶ 전등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낮 시간이 훨씬 지난 밤에도 주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야행성인 쥐가 낮에 음식을 먹는 것과 유사해
 - 많은 영양학자들은 밤에 음식을 먹을 경우 체중이 더 늘어난다고 믿고 있어
- ▶ 현대 비만의 증가가 인공으로 만든 빛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만큼이나 언제 먹

는가가 당신의 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함.

2010년 10월 14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17248910?story_id=17248910〉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인들

Women in South Africa: Walking several paces behind

- ▶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모이브라힘 지수(Mo Ibrahim Index)에서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성의 권리 항목에서 아프리카 53개국 중 4위를 차지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성차별지수(gender gap index)”에서는 세계 134개국 중 당당히 6위를 차지(등위가 높을수록 성차별이 적음)
 - UNDP의 “성 권한 향상 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는 182개국 중 26위
 - 그러나 UN의 성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에서는 182개국 중 129위
 - 이는 각 지수의 조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

일 뿐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들이 현재 다양한 양상을 겪고 있기 때문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996년 헌법에서는 성차별금지조항이 인종차별금지조항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집권정당인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는 흑인과 백인 모두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낙태를 합법화하고, 결혼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며, 가정폭력을 처벌하고,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범죄로 간주하며, 모든 형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교육, 고용, 정치분야에서 여성우대정책을 펼치며 지난 16년간 수많은 법률을 도입해 와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 중 하나

- 문제는 원칙과 실행의 괴리
-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크게 신장, 국회 의석의 44%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방, 농업, 외교, 광산, 과학기술, 내무 등 남성들이 주로 차지하던 분야를 포함, 각료의 41%가 여성, 중앙은행장도 여성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야당인 Democratic Alliance의 당수도 여성

- ▶ 정치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여권신장의 속도가 느려

-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여

성의 인구분포에 비례한 수 만큼 여성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평등고용법 (Employment Equity Act)이 제정된 지 1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백인 남성이 기업의 경영 및 이사진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비즈니스협회(Women's Business Association)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사회사의 이사진에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수가 5분의 1이라고 밝혀

- 졸업생의 반 이상이 여성인 대학은 교직원
- 의 45%가 여성이며 재판관 4분의 1이 여성
- 여성이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부분은 저임금 가내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여성의 임금은 여전히 남성 임금의 3분의 2 수준

- ▶ 여성에 대한 처우가 가장 변하지 않은 곳은 다른 아닌 가정

- 남성은 여전히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가끔씩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 Human Rights Wat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들이 받는 신체적, 성적 폭력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강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

- WHO의 연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의 40%는 첫 성경험이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혀

- 여성인권신장단체인 Sonke Gender Justice Network의 창설자는 폭력을 인정하는 여성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 대다수는 남자는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나 아내나 파트너에게 섹스를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십대 흑인들은 여자 아이와 아는 사이거나 여자 아이가 자신이 권한 술을 받을 때는 그 아이에게 섹스를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 ▶ 전통적 관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10명의 여인에게서 2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다른 여성과 약혼한 상태
 -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아직도 여성은 남성과 걸을 때 한 두 발 정도 뒤에서 걸어야 해
 - 과줄루-네이털 지역에서는 수 천명의 처녀들이 줄루 왕인 굿월 즈윌리티니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 놓고 춤을 추며 케이프 동부 지역의 마을에서는 소녀들이 늙은 남자와 결혼해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로 몰려
- 가끔씩 마을의 규율에 따르지 않는 여성들은 마녀로 몰려 화형 되기도 하며 레즈비언은 집단으로 성폭력을 당해
- ▶ 평범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의 삶은 아직 평탄치 못하지만 확연히 나아지고는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음

2010년 10월 7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17204625?story_id=17204625〉